

[ID01] 천문학 백과사전 사업의 진척상황

김광태

충남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

우리 한국천문학회 숙원 사업이던 천문학 용어 사전 편찬 사업이 지난 2004년 8월 학술진흥재단 사전편찬지원연구에 선정되어 지난 2006년 8월부터 2년간의 연구가 종결되었다. 천문학 전 분야에 걸쳐 중요 핵심 용어를 해설해서 백과사전을 편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가능한 각 분야를 최대한 망라해서 총괄을 포함해서 현역 회원 14인으로 편찬 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외 도합 79인의 회원이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집필에 참여함으로써 집필자로 하면 총 93인이 참여하는 백과사전사업이었다. 본 발표에서는 그동안의 진척사항을 발표하며 앞으로 전개될 사업의 방향을 소개함으로써 백과사전 출판에 대한 학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

[ID02] 학회의 천문학 용어 표준화 사업

김광태

충남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

학술 용어의 표준화 정비 사업은 지난 수년전부터 학술단체연합회의 고유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점점 많은 학회가 참여함으로써 모멘텀을 더해 가고 있으며, 우리 학회는 지난 여름 경주에서 있었던 용어정비 학술회의에 참여하여 본 사업의 마지막 기회인 2차 사업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로서 본 학회가 추진하려는 천문학 용어의 정비와 표준화 사업을 여러 회원들에게 소개한다. 용어 표준화란 사용되는 영문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적합한 번역 용어를 택하는 작업이다. 적합한 용어가 다수일 때는 선호순에 따라 나열해 둬서 표준화 작업이 완료된다. 표준화 사업의 필요성은 우선 학문 발전의 기초 작업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고, 이 사업의 당면한 시급성은 곧 도래할 자동번역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상업성에 있다. 우리 한국천문학회는 이번 연구 기회를 통해 현재 통용되는 천문학 관련 학술 용어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표준화함으로써 학회 발전 및 천문학 대중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표준화 작업의 전략과 추진과정, 그리고 본 연구에 속한 전문위원 및 연구단을 발표를 통해 소개한다.